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 2011 민주시민역량실태 조사

Vol.1 2012. 04.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 2011 민주시민역량실태 조사

개요

| 조사목적 |

- ▶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2009년에 IEA(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에서 실시한 『국제 시민의식과 시민성 교육 연구(ICCS :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전국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 조사지역 및 대상 |

- ▶ 전국 16개 시·도의 초등학교(4~6학년), 중학교(1~3학년), 고등학교(1~3학년, 일반고와 특성화고 포함) 재학생 9,398명 설문 조사

| 조사방법 |

- ▶ ICCS 2009에서 조사된 설문내용 가운데 태도-행동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만으로 구성된 설문지(2011 아동·청소년들 민주시민역량 실태 조사)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
- ▶ 기술통계값을 이용하여 집단 간 차이 비교 분석

| 조사기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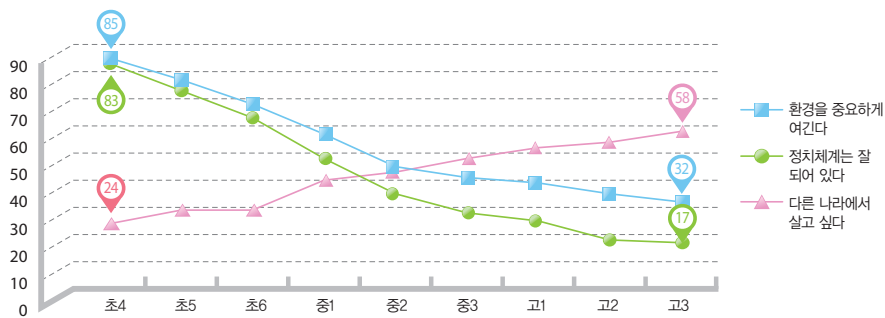
- ▶ 2011년 6월 4일 ~ 7월 15일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의식 및 태도조사 결과



● 학년이 높아질수록 국가관과 애국심이 부정적으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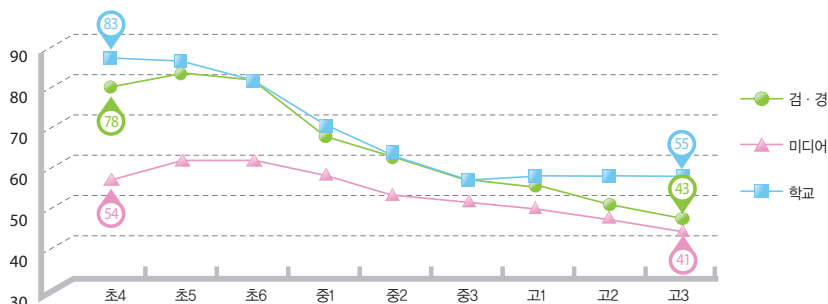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국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나 애착 정도는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지만, 중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83%는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가 잘 되어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17%만이 같은 대답을 하였고 초등학생은 27%, 중고등학생들은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우리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고 답했다.



[그림1] 학년별 국가에 대한 애착수준의 변화

● 학년이 높아질수록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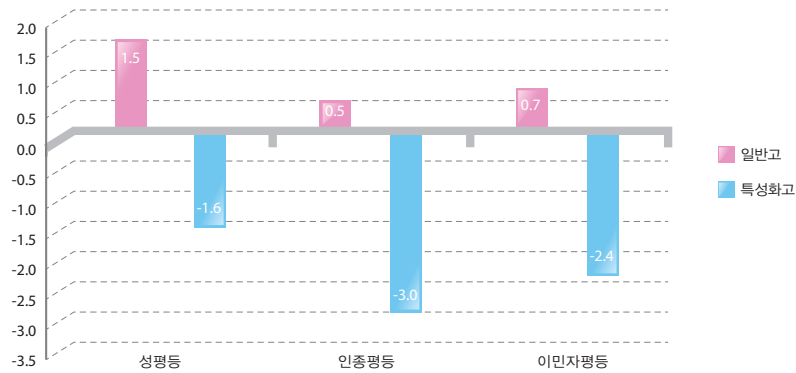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대한 청소년들의 신뢰 수준도 학년이 높아질수록 감소했다. 3대 헌법기관(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50%정도였으나 입법부에 대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17%만이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학교에 대해서도 초등학생들은 대부분 학교를 신뢰한다고 응답했으나 고등학생들의 경우 절반이상은 학교를 믿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그림2] 학년별 공공기관(검·경찰, 미디어, 학교)에 대한 신뢰

특성화고(실업계고) 학생들의 매우 낮은 시민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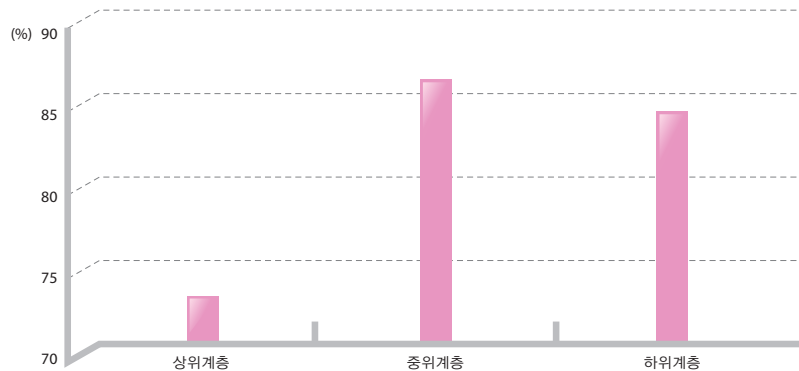
본 조사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 간의 민주시민역량 수준의 차이였다. 전반적으로 특성화고(실업계고) 학생들은 일반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중학생들보다도 낮은 성평등 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인종과 이민자 평등에 대한 인식에서도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그림3]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사회적 평등 의식 (전체 평균대비 편차)

부유한 청소년일수록 소득 격차 심화를 당연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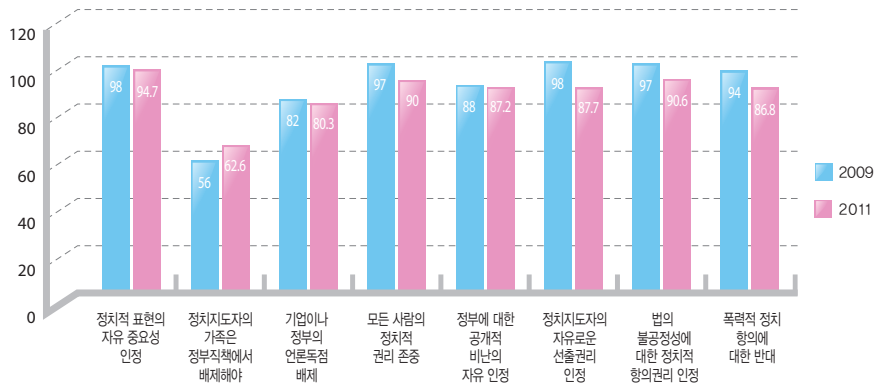
중하위계층의 학생들은 대부분이 소득 격차 해소의 문제를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가치로서 생각하고 있었으나, 동일한 응답을 한 상위계층의 비율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상위계층에 속한 청소년들이 소득 격차 해소의 중요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계층간 격차를 당연히 받아들이는 성인인구 비율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림4]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소득 격차 해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격차해소가 필요하다'는 응답의 %)

●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사회에 대한 가치와 신념은 2년 전인 2009년에 비해 퇴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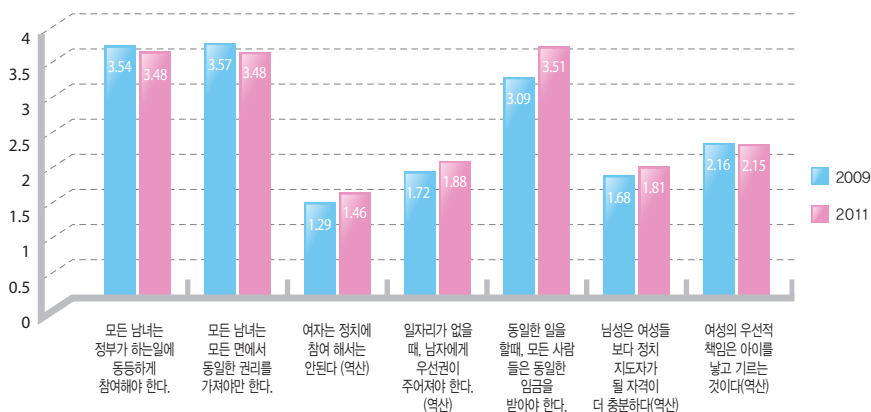
2009년과 2011년 중학교 2학년의 응답을 비교한 결과, 정부비판의 자유나 자유로운 선출의 권리, 정치적 항의의 권리를 인정하는 비율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항의방법에 반대하는 비율도 낮아졌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5] 시민사회의 기본원리에 대한 태도 변화

● 청소년들의 양성평등의식은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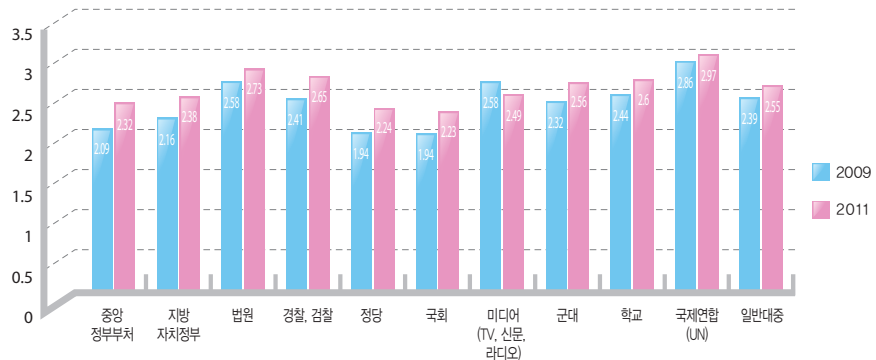
2009년과 2011년 중학교 2학년의 응답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양성평등의식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뚜렷하게 증가한 항목은 동일 노동시 동일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2009년에 비해 0.42 포인트(13.5%) 증가했다. 여자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치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의견(남자만 정치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문항에 대한 반대의견)도 각각 0.17 포인트 (13.1%)와 0.13포인트 (7.7%)로 비교적 많이 증가했다.



[그림6] 양성평등의식의 변화

●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대중매체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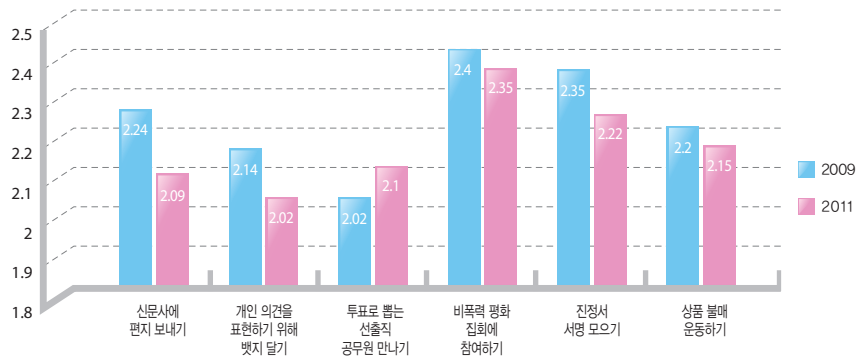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에게 4점 척도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하게 한 결과, 전체 평균점수는 2009년에 비해서 0.18점(7.6%)이 증가했다. 2009년에 비해서 유일하게 신뢰도가 낮아진 기관은 대중매체인 TV, 신문, 라디오로서 이 항목에 대한 신뢰점수는 0.09포인트(3.5%) 줄어들었다. 그러나 2011년에도 여전히 국회와 정당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았고, 우리나라 기관이 아닌 국제연합(UN)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았다.



[그림7]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의 변화

● 합법적인 정치 참여의사는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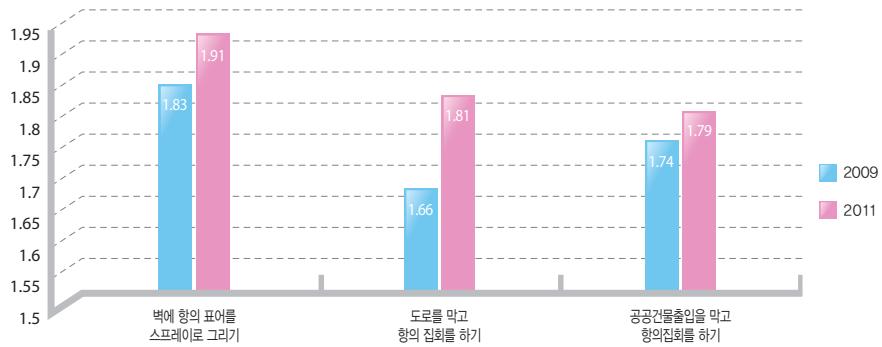
언론사에 의견전달, 불매운동, 뱃지달기, 서명운동, 비폭력평화집회 참여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적인 항의를 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2009년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 비해서 2011년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서 더 적게 나타났다.



[그림8] 합법적인 정치 참여의사의 변화

● 비합법적인 정치 참여의사는 증가

반대로 스프레이로 공공시설에 항의메시지를 그리거나 도로 혹은 공공건물을 막고 항의집회를 하는 등의 공격적이고 비합법적인 정치항의 의사는 여전히 합법적 정치항의 의사보다는 낮지만, 2009년에 비해서 2011년에 더 증가했다.



[그림9] 비합법적인 정치 참여의사의 변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114 교총빌딩 9/10층

114 Taebongro, Seocho-Gu, Seoul 137-715 Korea

Tel. 02-2188-8800 Fax. 02-2188-8869 www.nypi.re.kr

